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로 9천4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강남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첫 적자 '쇼크'

실적공시 이후 … 작년 4분기 9,400억 영업 손실

LG전자, 기아차 등 대기업 성적표 일제히 추락

'천당에서 지옥으로' 지난해 대기업들의 경영성적표를 압축해 표현한 말이다.

'상반기 맑음, 하반기 흐림'으로 요약되는 롤러코스터 경영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한해 실적을 어렴풋하게나마 내다볼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작년 4분기의 충격적인 경영실적은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지난해 전체 영업실적의 빛을 바라게 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던 대기업들의 실적은 4분기에 급전직하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산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해외법인, 자회사 등을 포함한 글로벌 연결 기준으로 7천4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 본사기준으론 1조원에 육박하는 9천4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냈다. 지난 2000년 3분기 처음 실적공시(IR)를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 연간 매출 118조3천800억 원으로 사상 첫 100조 원대 돌파, 영업이익 5조7천억 원 달성 등과 같은 실적 지표들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LG전자는 작년 4분기 1천14억 원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을 올리는 데 그쳤다. 본사 기준으로는 3천98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 13조3천708억 원이었다. 그러나 사업 각 부문에서 수요감소에 따른 경쟁심화로 영업이익률은 0.8%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의 영향 탓이다.

현대차 역시 작년 4분기에 매출 8조8천306억 원, 영업이익 5천810억 원, 당기순이익 2천436억 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9%, 27.9% 줄어들었다.

특히 작년 4분기 내수 판매는 22.8% 감소한 12만9천841대, 수출은 2.1% 증가한 31만8천380대를 보이면서 총 판매 실적이 44만8천221대로 6.6% 감소했다.

기아차도 작년 4분기에 판매 31만6천966대, 매출 5조411억 원, 영업이익 359억 원, 당기순이익 748억 원을 보이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판매 대수는 3.3%, 영업이익은 63.3% 감소하는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SK에너지도 작년 4분기 실적(매출 9조8천708억 원, 영업이익 2천689억 원)만 떼어놓고 보면, 5년 만에 분기실적 기준으로 첫 적자를 보이는 등 하락 조짐을 나타내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에쓰오일도 세계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분기 매출 4조5천85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증가하긴 했지만, 1천227억 원의 영업적자와 2천443억 원의 세전순적자를 보였다.

삼성전기의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실적도 매출 1조1천668억 원, 영업이익 395억 원, 순이익 85억 원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2.2%, 영업이익 36.1%, 순이익 67.8%가 각각 감소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상등을 켰다. 올해는 더 어려울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광주 작년 땅값 7년만에 떨어졌다

전년보다 0.89%↓… 전남은 평균 0.26% 올라

지난해 광주지역 땅값이 2001년 이후 7년 만에 하락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해 전국 땅값이 0.31% 떨어져 지난 1998년(-13.6%)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서울(-1.0%)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대전(-0.96%), 광주(-0.8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지난해 땅값이 2.58%가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1.36%), 전남(0.26%), 경남(0.10%) 등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15.21%)의 땅값 상승폭이 가장 컸고, 충남 당진(5.62%), 인천 남(5.34%), 부산 강서(3.67%), 여수(3.65%)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땅값도 지난 1998년 2분기(-9.49%) 이후 처음으로 광주(-1.31%), 전남(-1.17%) 등 전국 모든 시·군·구(249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서울(-3.48%), 인천(-3.74%), 경기(-3.13%) 등 수도권 땅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는 2.72%가 떨어졌다. 이는 전월(-1.44%)에 이은 2개월 연속 하락으로 하락폭은 전월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량은 광주지역이 3천334필지, 91만2천㎡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 수는 25.2% 감소하고 면적은 23.0%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16만2천25필지, 1억7천403만㎡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 수는 29.1% 감소하고 면적은 24.5%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된 토지는 249만9천753필지, 23억9천774만㎡로 전년과 비교해 필지 수는 0.4% 증가하고 면적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 쇼크' 주가 1,100선 붕괴

환율 12.9원↑ …1,390.9원

국내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쇼크로 반등 하루만에 하락해 1,100선이 무너졌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22.83포인트(-2.05%) 하락한 1093.4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락은 뉴욕증시가 부진한 경제지표 및 기업의 실적악화로 인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 등이 일제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지수 역시 휘청거리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손실이 9천370억원을 기록, 33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고 밝히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며 지수의 급락은 피할 수 있었다.

개인은 이날 2천687억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483억원과 1천642억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업종별로는 기계(1.01%), 섬유·의복(0.11%)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전날 LG전자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전자업종은 3.92% 급락했다. 보험(-3.58%)과 건설업(-2.94%) 등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코스닥지수도 하루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전일대비 5.75포인트(-1.60%) 내린 352.83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매수세를 유지하며 76억원 규모를 사들였고, 외국인은 95억원 순매도, 기관은 43억원 순매수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12.9원(0.94%) 하락한 1천390.9원으로 거래를 마쳐 1천400원선을 눈앞에 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설자금 작년보다 30% 감소

광주·전남의 올해 설 자금 방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을 앞두고 10영업일(12~23일) 간 한국은행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방출된 설 자금은 2천7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천848억원)보다 29.8%(1천145억원)나 감소했다.

설 방출 자금은 설 전 10영업일 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 중 환수된 액수를 제외한 순 발행액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감소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으로 지역 기업들의 생산 및고용부진이 심화하면서 지역의 소비심리도 위축된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생산업체들이 조업단축,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설 상여금 지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